내년도 국가예산 추가 확보전

정헌율 익산시장, 국회 예결·상임위원장·간사·예결위 위원 등 방문

익산시는 미래 성장동력인 내년도 국가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한 국회 단계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21일 국회를 방문해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사업소관 상임위원장·간사, 예결위원 등 핵심 인사를 만나 국회 단계 증액을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우선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김윤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를 순차적으로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장선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설립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백제 금마저 전통문화 복합체험단지 조성 등에 대해 소관 상임위에서 국가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이용호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조수진(법제사법위원회) 의원 등 예결위원을 만나 △국립 석재산업 진흥센터 설립 △국립 원헬스 통합연구센터 조성 △산재전문병원 건립 △익산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사업 등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내년도 국가예산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마지막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수흥, 한병도 의원실을 찾아 국회단계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협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헌율 시장은 "본격적인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둔 지금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내년도 최종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김수흥·한병도 국회의원과 긴밀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북지역 의원, 지역출신 정치권 인사까지 초당적 인맥을 총동원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은 9월~10월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10월~11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2024년 국가예산·신규시책 발굴 보고회 개최

군산시, 신규시책 등 69건 2조3762억원 규모 발굴

군산시는 21일 군산의 미래 성장동력을 견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 국가예산 및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새정부 기조와 새로운 도정에 발맞춰 국정과제와 도정과제에 부합하는 우리 시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준비됐다.

발굴된 사업은 국가예산 신규사업 18건, 2조3,661억원과 신규시책 51건, 101억원 등으로 총 2조 3,762억원 규모다.

주요사업으로는 △새만금 남북3축도로 건설사업,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구축, △저온 친환경 위판장 현대화 사업, △마한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조사, △분질미 생산단지 조성사업,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등이 발굴됐다.

아울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51건의 신규시책도 함께 발굴해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신규시책 사업으로 △군산교육 통합포털 구축·운영, △조부모 육아 지원사업, △소통·협업 공간 활성화, △찾아가는 주민등록 증명서 이용 설명회, △스마트 음수대 시범설치 사업 등이 보고됐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시책사업은 실현가능성, 효과성, 지역발전과의 연계성 등을 꼼꼼히 따져 신규사업으로 확정하고, 2023년 본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예산 사업의 경우 2024년도 정부예산 편성 시기에 맞추어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군산시-전북도-정치권 공조를 강화해 예산반영을 위한 정부 설득을 이어갈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금년은 새로운 국정과제와 도정과제가 제시되고 추진되는 해인 만큼 국정과 도정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청년뜰, '2022년 군산시 창업가 시장개척단' 행사 진행

군산시 청년뜰(창업센터)은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군산 롯데몰 1층 중앙홀(비단뜰)에서 '2022년 군산시 창업가 시장개척단'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으며 지역 대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군산 창업기업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해 추진됐다. 참여기업은 지난 8월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차별성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10개 창업기업을 선발했다.

이번 롯데몰 연계 창업가 시장개척단 행사는 제품홍보 및 판매를 위한 팝업부스 운영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마술공연, 버블쇼, 현장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창업 희망키움사업, 청년창업 생생지원사업,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 등 맞춤형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역량 있는 청년창업가를 발굴·육성하고 있다.

또한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를 통해 창업을 고려중인 모든 시민들을 위한 원스톱 컨설팅 및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의 창업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여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판로개척과 제품의 홍보로 고민하고 있는 지역 창업가들에게 시장 확대 및 매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어쩌다 주주' 특강 개설

익산시, 청소년 '주주' 체험형 경제교육 지원

익산시가 청소년들의 올바른 금융과 경제 가치관 정립을 위한 '주주'체험형 경제교육을 지원한다.

시는 금융 전문가를 초청해 청소년들이 직접 금융 운용 경험을 쌓는 '어쩌다 주주' 체험형 경제 특강을 개설한다.

'어쩌다 주주' 특강은 청소년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다음달 1일 익산청소년 수련관 내에 위치한 그루터기 청소년 작은도서관과 8일 마동도서관에서 각각 진행한다.

이번 특강은 '돈 없어도 나는 재테크를 한다', '하루 5분 부자노트'의 저자인 금융경제교육 전문가 윤성애 작가의 초청 강의로 진행된다.

참가 청소년들은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12년간의 신문 기사를 확인 후 직접 모의주식투자 게임을 진행해 실전 투자를 경험해 볼 수 있다.

참가대상은 중학교 1~3학년생 각각 20명씩이고 수강료는 무료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지난 21일부터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와 그루터기 청소년작은도서관 자체 수강신청 페이지를 통해 신청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투자를 단순히 돈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올바른 투자 자세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어쩌다 주주'는 현대사회 청년층의 금융경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경제전문 강사를 통해 청소년의 올바른 경제 가치관 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청소년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독감 무료 예방접종… 취약계층까지 확대

익산시는 가을철 인플루엔자(독감) 유행과 코로나19 동시유행(트윈데믹)을 대비해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국가접종 대상자에서 취약계층까지 확대실시한다.

우선 시는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21일부터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인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우선 만 13세 이하 어린이 중 2회 접종자를 시작으로, 10월부터는 1회 접종 어린이와 임신부 및 만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연령에 따른 일정으로 진행한다.

국가예방접종 무료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상관없이 지정의료기관(병·의원)에서 가능하다. 지정 의료기관은 익산시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관별로 접종 가능 인원이 제한되므로 방문 전 의료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접종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임신부는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한편 시는 무료 대상자를 만 14~64세 시민 중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생활자)으로 확대 실시한다.

취약계층 무료예방접종은 다음달 24일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 익산시보건소에서 접종 하며, 대상자는 신분증 및 증명서 등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전북도장애인체육대회 선수단 결단식

군산시는 21일 군산시장애인체육관 대강당에서 2022년 전라북도장애인체육대회 군산시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결단식에는 전북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종목별 선수와 임원, 장애인체육회 임원, 군산시장애인체육회 회장 강임준 시장을 비롯한 김영일 시의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필승의 의지를 다졌다.

선수단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남원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전라북도장애인체육대회에 14개 종목, 141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군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경기를 치를 것을 다짐했다.

이날 결단식은 강임준 군산시장애인체육회 회장의 격려사와 김영일 시의장의 축사, 백운용 수석부회장의 출정사, 선수단소개,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이 지금까지 흘린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는 경기를 펼치고 오길 바라며, 군산시장애인체육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도로변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군산시는 포상금제도를 활용해 도로변 누수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시 수도사업소는 '도로변 누수' 신고 시민에게 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수도 누수 조기 발견과 발 빠른 누수지 복구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누수신고 포상금제도는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41조(포상금 지급)에 의거 누수 신고자에게 군산특산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은 관경 100㎜이상은 4만원 상당, 100㎜미만은 2만원 상당의 특산품으로 관계 공무원이 누수신고지 현장을 확인해 누수지 복구 이후 군산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누수지 신고자 가정에 택배로 배송한다. 지난 2021년 누수 신고는 총 113건으로 240만원 상당의 포상품을 신고자에게 지급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트윈데믹 대비 감염취약시설 '보호'

익산시는 독감과 코로나19 동시유행(트윈데믹)에 대비해 감염취약시설 보호에 나선다.

시는 감염에 취약한 노인·장애인복지관, 경로당, 여성·청소년시설, 어린이집 등 1,000여개소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으로 이루어진 방역물품 꾸러미를 이달 중 배부한다.

이번 방역물품 배부는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일상 방역의 생활화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감염연결 고리를 차단함으로써 지역 확산을 저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시는 지속적으로 일상방역수칙(올바른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에 대해 SNS,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로 홍보하고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정헌율 시장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이긴 하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이 아닌 만큼 시민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